

남북통일 선언문

우리는, 조국의 해방과 분단 70 주년을 맞아, 8천만 한민족과 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인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필연이다. 한민족은 한 국토에서 하나의 역사와 문화를 수천년 동안 공유해 왔다. 한반도의 통일은 70년의 분단으로 벌어진 남북간의 간격과 이념 및 정치체제의 차이를 초월하는 한민족의 심오한 염원이고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고 조국의 절실한 소명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의 희망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북한주민의 고통과 이산가족의 슬픔은 문명세계의 적극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장을 통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남한은 심화되가는 이기주의, 소모적 정치분열과 사회갈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원코리아라는 희망의 실현은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유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촉진시켜 전 세계를 이롭게 할 처방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 20세기의 한국은 열강의 패권다툼 속에서 주권상실의 아픔, 분단의 고통, 그리고 전쟁의 참상도 견디어 왔다. 그러나 오늘의 한민족은 자국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정치 경제적 역량을 가지게 되었으며, 국제사회도 점진적으로 원코리아를 성원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분기점에서 있다. 70년간의 분단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통일국가를 건설한다면, 그것은 역사상 어느 민족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과업으로 평가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기초로 하는 원코리아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자는 범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면서 국제적 지지를 폭넓게 확보해야 할 때다.

한민족의 꿈은 자랑스러운 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다. 태고적부터 우리의 염원은 도덕적 가치, 보편적 원칙과 공정한 법에 의해 다스려지고, 천부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모범국가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러한 염원이 실현될 원코리아는 정이 넘치고 인도주의적인 주권국가로서 동북아와 전세계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증진시키는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가 실현할 원코리아는 어느 나라도 위협하지 않고 세계를 이롭게 할 것이다. 한민족은 역사 이래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한번도 없다.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의 정신적 유산이다. 그러므로, 원코리아는 동서양의 가치를 조화시키고 강대국들간의 첨예한 갈등을 완화시킴으로써 보다 평화로운 21세기의 세계를 지향하는 새로운 지도원칙들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원코리아는 현대화의 긍정적 요소와 조상의 소중한 가치들을 융화시킨 선진화된 전통 사회로서 세계의 귀감이 될 것이다.

원코리아는 우리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의 현대적 실현이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은 한민족의 마음, 정신, 풍습, 그리고 전통 속에 깊이 새겨져 왔다. 이 가르침은 원코리아를 힘차고 단단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국가철학을 제공한다. 바로 “홍익민주주의”의 구현이다. 따라서 원코리아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진정한 모델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원코리아의 전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방안들을 제안하며 모두의 성원과 지지를 희망한다:

- 우리는 원코리아를 창건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그 협력의 기반이 되는 한민족의 홍익인간 정신과 독특한 유산들을 일깨우기 위한 사업들을 권장한다.
- 우리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경제발전의 바탕이 될 기초시설을 북한에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북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과 더불어 남북의 공동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을 지지한다. 우리는 남북한 국민들을 연결할 수 있는 문화교류와 봉사사업 등을 전개하여 민간교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성원한다.
- 우리는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사업들에 이북 동포들이 참여함으로써 남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광범위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가 함께 번영하여 한민족이 자주 자결 자치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의 다리를 구축해 나가는 범국가적 사업에 모두가 동참하기를 간청한다.
- 우리는 8백만 재외 동포들이 원코리아 창건을 위한 세계적인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거주국들이 원코리아 운동에 실질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부탁한다.
- 우리는 모든 나라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몽골이 동북아 지역과 태평양권의 안보와 번영의 관문인 한반도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할 것을 청원한다.
- 우리는 유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아시아 기초시설 투자은행, 세계보건기구, 및 다국적 비정부기구들에게 원코리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요청한다.

이 역사적 시점에 우리는 한민족이 분리될 수 없는 한 가족, 한 민족, 그리고 한 나라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우리의 역사적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그것이 자손만대에 자랑스러운 선례로 기록될 원코리아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전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